

지역 소식통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이달부터 2만원 인상

고창군이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호국보훈수당을 2만원 인상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6.25참전·월남참전) 본인에게는 월 15만 원, 그 외는 월 13만 원의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호국보훈수당은 군 차원의 보훈 예우 강화를 위해 군비 부담을 확대하여 추진된 사항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군의 보훈 행정 추진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군은 작년, 보훈수당 미신청자 발굴 사업을 통해 55여 명의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 보훈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악취저감에

4억3100만원 예산 투입

정읍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4억3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감시망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시설 개선 지원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먼저 △탈취탑 설치 △악취 저감 미생물제 지원 △음식 미세먼지 및 악취 방지시설 지원 등 총 9개 분야의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 및 접수는 오는 3월 공고를 통해 진행된다.

이러한 지원책과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도 병행한다. 시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 처분까지 진행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무인악취포집기 5대를 주요 악취 발생 우려 지역에 추가로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신속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 예정이다. 또한, 평일은 물론 주말과 심야 시간대에도 '악취대응반'이 순찰을 돌며 감시 활동을 펼친다.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대'

고창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선정... 도비1억4000만원 확보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에 선정돼 도비 1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기업지원을 위한 '고창군 재도약 기업(UP) 지원사업Ⅲ'으로 공모해 선정됐다. 확정된 도비는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추가로 군비를 확보해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시·군의 일자리 협력 대표사업이다. 지역의 고용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 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특히 기업들이 원하는 인제 양성과 근로환경 개선, 고용 안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기

업고용환경개선, 고용장려금·신규입사자 정착 지원, 채용설명회 지원) 등이 운영되면서, 관내 인력난 해소와 지역 인재의 안정적 정착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수요자(구직자, 기업)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의 운영은 기업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우즈베키스탄 안디잔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부안군은 지난 23일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현재 베트남과 라오스 등 2개국과 협약을 통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번 우즈베키스탄과의 추가 협약을 통해 영세 농가에게 더욱 힘이 될 수 있도록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다양한 국가와 MOU 체결을 추진해 부족한 농번기 인력을 충원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및 관리 협력, 불법체류 방지, 근로조건 및 체류 관리 이행 협조 등으로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양국의



부안군은 지난 23일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농번기 인력 확보를 위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외국인 계절근로

자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16억9000만원 투입

당현마을 교차로 등 4곳 대상,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사고예방 '총력'

정읍시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올해 총 사업비 16억9,000만원을 투입해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도로 4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정부의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도로교통공단, 정읍경찰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지점에 대해

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개선 대책을 수립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정비될 주요 사업 대상지는 당현마을 교차로 개선 △군도 20호선(감곡중학교 인근) 도로 선형 개량 △시가지동 초산교 사거리 개선 △용동면 오성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등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필요한 안전 시설물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그동안 도로 구조 문제로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 불만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교통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정비로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지속적인 도로 시설 점검과 확충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정읍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올해 1월부터 정읍에 기부하는 기부자들 또한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고 26일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44%로 상향

정읍 생화학 활동 초콜릿 등 품목 추가... 담례품 구성 '풍성'

정읍시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정읍에 기부하는 기부자들 또한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고 26일 전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올해부터 지자체에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돌려받는 세금은 기존 약 11만6,500원에서 약 14만4,000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기부금의 30%인 6만원 상당의 담례품까지 받게 되면 총 20만4,000원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20만원을 기부하면 낸 돈보다 4,000원 더 많은 혜택을 돌려받는 구조가 완성되는 셈이다.

시는 이러한 혜택 확대가 기부 유인의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매력적인 담례품 구성에 공을 들였다. 기존의 한우, 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인기 품목은 유지하되, 올해부터는 정읍 특산물인 생화학 활동 초콜릿, 블루베리 잼, 짜 먹는 블루베리 등 신규 품목을 추가했다. 제도 변화로 관심이 높아진 잠재 기부자들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시는 기부금이 헛되지 쓰이지 않고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금사업 발굴에도 주력했다. 올해는 조성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총 3억4,300만원 규모의 9개 기금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드림스타트 아동 문화예술 공연 관람 지원 △실종 위험 치매 환자 스마트 태그(위치 추적 장치) 지원 △장애인·고령자 치유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읍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아이돌봄 이용자 본인 부담금 지원 △고향사랑기부 마라톤 대회 개최 △소음측정기기 대여 서비스 △구독형 전자자료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읍, '2026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회' 성황

부안읍 부안읍(읍장 김병태)은 부안읍 예술회관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읍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실창래(結實蒼來) 2026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회'를 26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희망소통대회에 부안읍 주민자치센터 생활체조와 시낭송 식전 공연과 부안읍 이장단 협의회(회장 김용화), 새마을부녀회(회장 강명례)이 부안군 근농인재 육성장학금을 기탁하고, 출향인 4명과 부안읍 새마을부녀회, 모산마을 부녀회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김병태 부안읍장은 '부안의 결실을 읍민의 행복으로'라는 2026년 부안읍

비전 아래 주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활력이 넘치고 살고 싶은 도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통합도시,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 부안을 계속해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 도약을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부안형 바람연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안철도 시대 구축을 제시하며, 군정의때 군수가 답변자로 나서 지역발전과 현안사업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

행사 후 여귀·구덕·회성경로당 등 3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